

나지완, 올 세번째 홈런포... 윌리엄스 감독 "굿~"



KIA 나지완이 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흥백전에서 4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홈런을 기록한 뒤 홈에 들어오고 있다.

KIA 흥백전 핫 플레이어-나지완

멀티히트 기록... 타격 상승세 꾸준
올 시즌 '화력의 키' 기대감
팀 최다 홈런 기록 경신 눈 앞

체중 줄이며 순발력 상승
좌익수 수비 반경도 넓어져
"고참으로서 우승 조력자 되고 싶어"

여유를 찾은 나지완이 '호랑이 군단'의 통산 최다 홈런 기록에 청신호를 켰다. KIA 타이거즈 나지완이 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흥백전에서 선제 솔로포를 날리며 백팀의 4-3 승리를 이끌었다. 백팀 4번 타자 겸 좌익수로 출전한 나지완은 0-0으로 맞선 4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이민우의 직구를 공략해 중앙 담장을 넘겼다. 흥백전 1호 홈런 주인공 나지완의 두 번째 홈런이었다. 스프링캠프까지 포함하면서 3호포. 나지완은 6회 1사에서 중앙 펜스를 때리는 2루타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윌리엄스 감독이 대주자 이우성과 교체해 들어온 나지완을 향해 '나지완 굿'을 외칠 정도로 좋은 타격이었다. 나지완은 지난 시즌 56경기 출전에 그쳤다. 2008년 입단 이후 가장 적은 출장수다. 129타수 24안타로 타율이 0.186에 불과했고, 6홈런 17타점에서 시즌이 끝났다. 지난 시즌 부진에도 나지완은 올 시즌 KIA 화력의 키로 꼽힌다. 안지홍의 이적 속 특별한 화력 보장이 없고, 무엇보다 KIA의 장타력이 약점으로 꼽히는 만큼 나지완의 활약이 절실하다. 윌리엄스 감독은 나지완에게 '4번 타자'를 맡기며 반전의 시즌을 위한 판을 깔아줬다. 캠프 첫 연습 경기부터 4번에 선 나지완은 중심타선에서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꾸준하게 경기에 나서면서 조금씩이 사라졌고, 방망이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나지완의 타이거즈 통산 최다 홈런 기록 경신에도 속도가 붙었다.

나지완은 지난 시즌까지 204차례 담장을 넘겼다. 순수 타이거즈 최다 홈런 기록인 김성환의 207개가 눈앞에 있다. 일단 몸을 잘 만든 게 적중했다. 나지완은 "겨울에 준비를 잘해서 몸이 단단해졌다. 체중은 4~5kg 빠졌는데 체지방이 7% 이상 빠졌다. 트레이닝과 계속 상의해서 신경 썼다. 나 이 먹으면서 스피드가 떨어지는 걸 느꼈고 순발력 운동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타석에서는 현실 인식과 책임감이 영향을 미쳤다. 나지완은 "앞서 주전 선수로 뛰면서 (결과가 안 좋으면) 다음에 치면 된다는 생각이 많았다. (지난 해) 들쭉날쭉한 시합을 하면서 스스로 쫓겨 빠른 승부를 한 게 특이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코치님들과 잘 이야기해서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며 "야구 선수 실력은 좋아 한 장 차이로 생각한다.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담감을 떨쳐내야 한다. 여유가 생겨서 내 스트라이크 존대로 잡아하려고 하고 있고 과정이 순탄하다. 그게 제일 좋은 포인트"고 밝혔다. 또 "내가 어떤 타수에 들어가든 팀의 중요한 방향성이 있다. 고참이 되다 보니 후배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선수가 되려면 좋은 모습 보여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좌익수로서의 역할도 점점 편해지고 있다. '스타트'에서 자신감을 찾았다. 나지완은 "놓치는 타구는 반 발에서 한 발 차이인데 연습 많이 하면서 스타트가 잘 되고, 자신감도 생겼다. 모든 타구를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건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팀에 가장 극적인 우승을 안겨줬던 '끝내기 사나이'. 하지만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타이거즈 팬들에게는 '애증의 선수'가 된 나지완은 '감사'를 이야기한다. 나지완은 "KIA 타이거즈 선수로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 항상 죄송한 마음이 다.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건 당연한 거고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다"며 "나 이 먹어가면서 조금씩 다음을 생각하는 단계가 왔다. 고참으로서 후배와 팬에게 도움이 되는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기 때문에, 또 한 번 우승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



8회초 1사 1·2루에서 우전 안타로 출루한 김규성이 도루를 시도해 2루에서 세이프되고 있다.

브룩스 5이닝 무실점... 150km 강속구 타자 압도

흥백전 7차전

늦어진 개막이 아쉬운 '신입 호랑이' 애런 브룩스의 페이스다. KIA 타이거즈가 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흥백전 7차전을 치렀다. 브룩스와 이민우가 각각 백팀과 흥팀의 선발로 등판해 5회까지 마운드에 서며 페이스를 끌어올렸다. 특히 브룩스는 5이닝 2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이며 박수를 받았다. 브룩스는 1회 1사에서 김규성에게 중전안타는 맞았지만 박민과 황대인을 땅볼로 처리하며 이닝을 끝냈다. 2회에는 탈삼진 두 개를 더하며 삼자범퇴, 3회와 4회에도 세 명의 타자만 상대했다. 4회 선두타자 김규성에게 우전 안타는 허용했지만 바로 포수 한승택과 좋은 호흡을 과시하며 도루 저지로 아웃 카운트를 올렸다. 5회 1사에서 첫 볼넷을 내준 브룩스는 2루수 실책으로 1사 1·2루에 몰렸지만, 6-4-3으로 이어지는 병살타구로 남은 아웃카운트 두 개를 채우며 등판을 마감했다. 최고 150km를 찍은 강속구를 중심으로 투심, 체

인지업, 슬라이더, 커브를 섞어가며 타자들을 요리했다. 위력적인 체인지업과 공격적인 피칭으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으며 경기를 압도했다. 이날 53개의 공을 던진 브룩스는 38개를 스트라이크존에 집어넣었다. 백팀의 4번타자 나지완이 홈런과 2루타로 타석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했고, 흥팀의 테이블 세터를 책임진 '젊은 피'들의 움직임도 눈길을 끌었다. '고졸 투기' 흥종표가 투타자로 나섰고, 최근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는 김규성이 2번에서 흥팀의 테이블 세터를 구성했다. 첫 타석에서부터 자신감 있는 타격을 선보인 흥종표는 중전 안타와 볼넷으로 출루해 도루 하나와 1득점을 기록했다. 첫 타석에서 중전안타를 만든 김규성은 4회에는 우익수 방향으로 공을 보내 4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김규성은 8회에도 안타를 추가하며 3안타 경기를 펼쳤다. 경기는 나지완의 선제 솔로포를 앞세운 백팀의 4-3 승리로 끝났다. 한편 KIA 선수단은 8일 휴무일을 보낸 뒤, 9일 오후 1시 챔피언스필드에서 흥백전 8차전을 치른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

"코로나 안정되면 프로야구 다음달 초 개막"

KBO 실행위 회의... 21일부터 타 팀간 연습경기 검토

KBO와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5월 초 개막'을 목표로 2020년 정규시즌 준비를 시작한다.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KBO는 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2020시즌 정규시즌 개막 시점'을 논의했다. 10개 구단 단장들과 KBO는 조심히 '4월 21일 구단 간 연습경기 시작, 5월 초 정규시즌 개막'에 무게를 뒀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2주 동안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세 등 사회적 분위기를 살펴본 뒤, 4월 21일부터 타 구단과의 연습 경기를 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안정세를 보이면 5월 초 정규시즌 개

막을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주일 전인 3월 31일 KBO 실행위는 "정규시즌 개막을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4월 내 개막은 어렵다. 그러나 KBO 실행위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줄어들면 5월 초에는 정규시즌 개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자체 평가전을 치르는 10개 구단은 4월 21일부터 다른 팀과의 평가전도 소화할 계획이다. 시범경기는 취소됐지만, 각 구단은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팀 간 평가전'으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다. KBO는 1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정규시즌 개막일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MLB '무관중 경기' 카드 만지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창궐로 시즌 개막이 무기한 연기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애리조나주에서 무관중 경기로 시즌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메이저리그와 선수노조는 7일 전화 회의를 갖고 30개 구단이 전부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으로 이동해 시즌을 개막하는 안을 협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3월 중순 스프링캠프를 중단한 메이저리그는 시

즌 개막도 5월 중순 이후로 미룬 상태다. 그러나 미국 내 코로나19가 더욱 확산하며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시즌이 아예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앞서 롬 맨프레드 메이저리그 커미셔너는 "시즌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시즌 개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시사했다. /연합뉴스